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39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77)	봉헌 (211)	성체 (182)	파견 (271)
---------	---------	----------	----------	----------

미사 전례 예절

- 미사 중에는 가급적 합장을 하십시오.
 양손 바닥이 마주 닿게 하고 손끝의 위치는 자기 어깨 높이에 두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왼손 엄지를 누릅니다.
 이때 손끝이 정면이나 바닥을 찌르듯 한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내 마음을 향한다는 의미로 위로 향하게 합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때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 때 엄지로 이마, 입술, 가슴에 대고 작은 성호를 그으십시오.
- * 이마는 머리의 중심으로 복음 말씀을 잘 깨닫고,
- * 입으로는 깨달은 바를 전파 또는 고백 하며,
- *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생활 속에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시
 그리고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서나 매일미사 책을 보지 말고 합장하고 들어야** 합니다.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16	이 그레이스	이 요한/황 스텔라	황 스테파노
9/23	이 마틸다	이바오로/손 데레사	황 스테파노
9/30	유 요한	이 요한/황 스텔라	황 스테파노
10/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손 데레사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05	\$	\$2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22	이 요한/ 이 마틸다	10/27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9/29	유 요한/ 유 마리아	11/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10/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1/10	김 마론/ 김 헬레나
10/13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1/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0/20	김 요아킴/ 고 안나	11/24	황 가롤로/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10 월 4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10 월 8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정 방문시 기도 합니다

가정 방문시 기도 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댁을 방문 할 때 “이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주모경, 등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초월 지수

-성기영 아가씨 | 작가, 작곡가-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 능력 지표로 흔히 지능 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를 활용합니다. 그렇지만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해서 꼭 학습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이를 보완할 감성 지수(E.Q. Emotional Quotient)라는 개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좌절하지 않는 태도,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학업 성취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 밖에도 심리학자와 저술가들은 각종 지수를 고안해 냈습니다. 한때 책의 제목 뒤에 Q자를 붙이는 게 출판계의 유행이었다고 하네요. 어떤 부모가 현명한 부모인가를 따져보는 ‘부모 지수’, 유명인들의 성공 요인을 탐구하는 ‘성공 지수’에 이어 ‘카리스마 지수’라는 말까지 나온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믿음의 단계를 측정하는 ‘믿음 지수’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수치화한 모든 잣대와 전혀 다른, 믿음의 척도로 인간을 평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에도 분명히 단계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 저리 궁리를 해 보아도, 믿음 지수의 기준을 세우기는 너무나 어렵군요. 이를테면 ‘순수한 사랑’, ‘진실한 마음’, ‘순종’, 또는 ‘희생’의 단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믿음의 주체가 오로지 인간이라면 어떤 분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 하느님의 부르심이 개입함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담론은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시대라지만, 세상에는 인간의 지력으로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망망대해라면, 현재 인간이 가진 지식은 그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잘했거나 큰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저 은총의 빛에 이끌려 믿음의 길 위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모든 능력을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지수를 넘어 ‘초월 지수(T.Q. Transcendental Quotient)’라는 개념만이 떠오르는군요. 물론 알량한 제지력으로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4차원의 시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한 무한 차원의 존재. 우주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며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 사랑이신 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온 세상을 품은 무한대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믿음의 세계에 초대 받았음에 그저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총고해가 뭔가요?

사제들도 사람인데 어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제들도 사제들끼리 고해성사를 주고받습니다. 고해소는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의 대리자인 사제와 함께, 한 개인이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느님을 얼마나 느끼고 살았는지, 하느님과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생기 있게 했고, 무엇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하느님께서 고해소에 오는 모든 이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